

宗旨의 表明이 갖는 宗教的 意味에 대한 考察

朴龍哲*

目次

I. 들머리	5. 그 외 宗徒들의 宗教活動과 宗旨
II. 宗旨의 表明이 갖는 宗統의 意味	III. 道主 趙鼎山의 天賦的인 宗教性
1. 高判禮의 宗教活動과 宗旨	1. 誕降에서 奉天命까지의 宗教狀況
2. 車京石의 宗教活動과 宗旨	2. 奉天命에서 歸國까지의 宗教狀況
3. 金亨烈의 宗教活動과 宗旨	3. 歸國에서 宗旨 發表까지의 宗教狀況
4. 安乃成의 宗教活動과 宗旨	IV. 끝머리

I. 들머리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 그 글에는 主題가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이 뜻을 두고 일을 圖謀하면 그 일을 표현할 수 있는 核이 되는 용어가 있을 것이다. 책을 읽는 사람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일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일을 도모하는 사람의 眞義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이 날 것이다. 즉, 주제와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주제와 진의를 엉뚱하게 파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에서도 이러한 면이 무엇보다도 주요한 의미로 부각되어지는데 그러한 면이 잘 나타나는 예를 ‘中國禪宗史’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六祖壇經』에 의하면 達摩祖師가 6세기초¹⁾ 중국 소림사에서 행한 9년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1) 鄭性本,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民族社, 1993), 48쪽

面壁의 道를 以心傳心の 法으로 傳할 때 달마의 여러 제자 중 ‘知者不言 言者不知’의 이치를 진정 깨달은 慧可가 禪宗의 脈을 이어 받았다. 즉, 『六祖壇經』은 달마의 종교적 眞髓가 慧可·僧璨·道信·弘忍·慧能으로 이어짐을 설명하고, 또한 육조 혜능(638~713)을 頂點으로 하여 선종의 번창이 큰 숲을 이루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 육조단경은 육조 혜능이 달마의 진수를 ‘敎外別傳·不立文字’의 實踐修行方法을 통하여 ‘直指人心’을 하면 ‘頓悟’에 의한 ‘見性’을 이룩하여 ‘成佛’된다는 선종의 체계를 定立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달마의 진수가 6조 혜능까지 하나의 맥으로 전수되어오다가, 그 법의 맥이 200년이 지나면서 번창함을 보이는 사실은 논자로 하여금 종교의 진수를 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교의 진수를 아무나 전해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역사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大道의 眞髓를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예를 『전경』에서 살펴보면 九天上帝로부터 ‘東洋의 大聖人’²⁾으로 평가를 받았고, ‘仙道の宗長’³⁾과 ‘日本冥府에 대한 主張者’⁴⁾로서의 神格을 命받은 水雲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降世)하였노라”⁵⁾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8세에 無不通知하고 10세에 세상을 진단하고 탄식하였다는⁶⁾ 최제우도 상제

2) <전경> 행록5장 38절에, … 知天下之勢者 有天下之生氣 暗天下之勢者 有天下之死氣 孔子魯之大司寇 孟子善說齊梁之君 西有大聖人曰西學 東有大聖曰東學 都是 敎民化民

3) <전경> 교운 제1장 65절: 또 어느날 상제께서 말씀하시길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운(崔水雲)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 진묵(震默)을 불도(佛敎)의 종장(宗長)으로, 주회암(朱晦庵)을 유도(儒敎)의 종장(宗長)으로, 이마두(利瑪竇)를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으로 각각 세우노라”고 하셨습니다.

4) <전경> 공사 제1장 7절: 상제께서 김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전명숙(全明淑)으로, 청국명부(淸國冥府)를 김일부(金一夫)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수운(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불사르셨도다.

5) <전경> 교운 1장 9절

6) 申一激의 15명, <東學思想과 東學革命>, (청아출판사, 1992), 96쪽에, “8세에 입학하여 허다한 만권시서 無不通知하여 내니 生而知之 방불하다.”<夢中問答歌> …

의 종교적인 진수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한 사실에서 ‘今不聞古不聞의 天地大道’⁷⁾의 진수를 밝히고 행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의 글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교행위를 하는 후인이 성인의 뜻을 정확히 밝혀 敎義를 定立하는 것과 敎義의 실천행위의 可否에 따라 종교의 생명력이 결정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大宗教家이신 구천상제께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하신 天地公事에도 그 진수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을 것이며 이를 종교에서는 宗旨로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단의 종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그 종단의 종지가 구천상제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大巡思想論叢』은 도주께서 表明하신 종교적인 眞髓인 ‘陰陽合德·神人調化·解冤相生·道通眞境’이란 16字 종지의 眞理를 하나 하나 밝혀 왔었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는 대순진리회의 종지가 갖는 전체적인 진리를 깊이 있게 논하기보다 道主께서 종지를 定하여 발표하던 을축(1925)년을 전후하여 타종단의 종교활동과 종지를 살펴봄과 종지를 표명하기까지의 과정과 시대적 환경을 고찰함으로써 道主 趙鼎山의 天賦的인 宗統의 意味와 宗教性을 보고자 한다.

II. 宗旨의 表明이 갖는 宗統의 意味

道主 趙鼎山께서 1924(甲子)년, 밀양 종남산 靈聖亭에서 밤 열 시부터 다음날 아침 여섯 시까지 다섯 달 동안 계속하여 幣帛度數를 행하셨다.⁸⁾ 그 후 31세 되시던 1925(乙丑)년에 舊泰仁 道昌峴에 道場을 이룩하시고, 도주의

“10세를 지내나니 총명은 師曠이요 才局이 비범하고 재기 過人하니 평생에 하는 근심 효박한 이 세상에 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를 주소간 탄식하니”<夢中問答歌> …

7) <전경> 교운 2장 18절: 도주께서 통사동(通士洞) 재실에서 어느날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吾道者今不聞古不聞之道也)”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앞에 모으고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상생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여 도(道)를 밝혀주셨도다.

8) <전경> 교운 제2장 30절

奉天命日인 음력 4월 28일에 姜甌山이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임을 밝히시고, 奉安 致誠을 하였다. 이어 도주께서는 道의 名을 无極道⁹⁾로 定하시고, 무극도의 趣旨書와 宗旨, 信條, 目的, 道規를 정하여 발표하였다.¹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信仰의 對象인 姜증산을 모실 도장을 營建함. 둘째, 상제를 모시기 위하여 지극 정성을 다하여 폐백을 드림. 셋째, 도장을 완성하여 신앙의 대상인 상제를 도장에 봉안하고 첫 봉안 치성을 올림. 넷째, 상제의 神格을 밝힘. 다섯째, 宗團의 名을 表明함. 여섯째, 도의 취지서·종지·신조·목적·도규를 발표함의 순서를 밟았다.

이러한 과정은 종단을 형성하는 기본 골격을 완벽하게 갖추는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제를 信奉하는 타 종단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구별되는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난다.

첫째, 폐백도수에서 나타나는 도주의 상제에 대한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제에 대한 至極 精誠은 타 종단의 문헌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지만 문헌에 없다고 하여 지극 정성이 없었다는 주장하기는 어렵다. 단지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도주께서 보여 주신 정성은 일반 사람들이 감히 흉내내기 어렵다는데 있다. 둘째, 姜증산의 칭호와 姜증산의 신격을 밝히는 것이다. 도주께서는 상제의 신격을 분명히 밝혔지만 타 종단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신격이 변하는 것도 발견된다. 셋째, 종지의 표명에 있다. 즉, 1925년을 前後하여 타 종단에서는 취지서·종지·신조·목적·도규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유사형만 나타나지만 분명한 것은 도주께서 표명하신 16자의 종지를 1925년 前의 ‘他宗團史’에서 찾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이와 같이 정리한 세 가지 특징 중 타종단과의 비교에서 뚜렷이 대비될 수 있는 부분은 신격과 종지이다. 여기서 신격은 증명을 하기가 쉽지 않기

9) 李正立, <甌山敎史>, (甌山敎本部, 1977), 134쪽에, ‘无極道’를 ‘無極大道敎’로 표시되어 있음.

村山智順 著, 崔吉城, 張相彦 共譯, <朝鮮의 類似宗教>, (啓明大出版部, 1991), 目次에, 无極道’를 흠치계 유사종교단체로서의 ‘無極大道敎’로 표시되어 있음.

10) <전경> 교운 제2장 32절

洪凡草, <汎甌山敎史>, (도서출판 한누리, 1988), 359-360쪽

李正立, <甌山敎史>, (甌山敎本部, 1977), 136-138쪽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로 취급받기가 쉬운 경우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객관적 해석과 보편적 상식의 접근이 가능한 宗旨를 가지고 宗統의 정당성을 살펴보았다.

즉, 도주의 宗統繼承의 정당성은 親炙從徒와 그 외 종도가 다음의 네 가지의 조건에 부합한 종교활동을 하였는지 가지고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종교활동을 하는 자가 종단을 형성하고 그 종단의 명을 분명히 표명하고 종교 활동을 하였는지 둘째, 종단명이 표명되었다면 그 종단이 상제의 종교적인 진수를 밝힌 종지가 있는지 셋째, 그 종단이 종지를 표명하였다면 그 종지가 가지고 있는 뜻이 전 우주적인 법칙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넷째, 그 종단의 종지가 현대까지 오면서 不變하였는지 이다.

이는 宗統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좋은 객관적인 평가척도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주 조정산께서 종지를 발표한 1925(乙丑)년을 전후하여 상제의 종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敎徒들이 종단 창설과 더불어 종지 부분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다음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 高判禮의 宗敎活動과 宗旨

高判禮(1880-1935)는 1880(庚辰)년 全羅道 潭陽郡 武面 成道里에서 탄생하였다.¹¹⁾ 그는 상제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 의해 1907(丁未)년 동짓달에 首婦가 된 인물이다.

상제께서 정미년에 태인 고현리 행단에 이르러 차 경석에게 “夫主將之法 務攬英雄之心 賞祿有功 通志於衆 與衆同好靡不成 與衆同惡靡不傾 治國安家得人也 亡國敗家失人也 舍氣之類 咸願得其志”란 글 한 절을 외워 주시고 잘 지키기를 바라시면서 수부(首婦)가 들어서야 하느니라고 이르시니라. 경석이 상제를 모시고 돌아와서 그 이종매(姨從妹) 고부인(高夫人)을 천거하니 이날이 동짓달 초사훗날이니라.(「전경」 교운 제1장 26절)

고수부는 상제께서 化天후 친자종도들이 원래 天師를 모셔 좋은 세상을 만나서 영화와 복록을 누리려는 희망으로 천사를 따르다가 뜻밖에 천사께서

11) 李正立, <甌山敎史>, (甌山敎本部, 1977), 220쪽

화천하시므로 모두 크게 실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1911(辛亥)년 9월부터 교단을 창립한 뒤에 포교에 힘을 썼다¹²⁾고 한다. 이와 같이 교단을 창립한 고부인이 교단의 명칭을 어떻게 칭하였는지 그 연혁을 살펴보면 洪凡草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高夫人이 신해(1911)년 9월에 종도들을 소집하여 교단을 창설할 때 뚜렷한 敎名을 제시한바 없지만 그 敎徒들이 太乙呪를 읽는 교단이라는 뜻으로 世間에서 太乙敎라 부르게 되었다. 후일에는 여기서 갈라져 나간 교단이나 이와 관련없이 다른 종도들과 門人들이 세운 교단까지도 모두 태을교라 불러서 그 당시의 신문이나 책자에 그렇게 일컬어 왔는데 고부인이 대흥리 차경석의 집에서 창설하고 主宰했던 교단을 필자(洪凡草)는 특별히 原太乙敎라 불러 태을교라는 敎名으로 불리워졌던 다른 교단과 구별하고자 한다. 원태을교는 종도들을 소집하여 교단을 창립한 것이 고부인이었고, 찾아오는 교도들의 崇仰對象이었으며 교단을 主宰한 것도 고부인이었다. 이 때 차경석은 대흥리 자기의 집이 本所로 지정되었고 교단의 안팎일을 總察하여 차츰 人權을 쥐게 되었으나 교단의 주인공은 고부인이었고 차경석은 어디까지나 고부인을 補佐하는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원태을교시대의 특징을 위와 같이 보면 원태을교의 存立 기간은 고부인 교단창설을 선언한 신해(1911)년 9월부터 차경석이 統敎權을 장악하여 병진(1916)년 冬至에 24 方主를 임명하고 고부인 거처하는 방에는 禮門이라 하여 珠簾을 씌우고 누구를 막론하고 경석의 승낙 없이는 예문의 출입을 금한 때까지 5년여 간이었다.(『범증산교사』 33-34쪽)

여기서 논자가 생각하기에 친자종도들은 상제께서 화천을 예시하였지만 상제께서 살아 계실 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心情에 그런 사실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상제께서 친자종도들에게 종통계승에 대한 간접적인 諷諭·暗示의 말씀을 남겼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친자종도들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할 때 갑자기 상제께서 친자종도들 중 특정인에게 종통계승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이 화천하시니 종도들은 상제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종도들의 방황에서 고부인이 교단을 開創하고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었을 것이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1907년 동짓달에 상제의 首婦公事 및 『大巡典經』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말씀을 根

12) 李正立, <甌山敎史>, (甌山敎本部, 1977), 238쪽

據로 하여 계승명분을 주장할 수 있는 고부인이 종단을 開創하고 종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고부인이 1911년 종단을 개창할 때 종통계승의 정당성에 根據를 삼는 『大巡典經』의 ‘高首婦의 관계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표1> 高首婦의 관계기록¹³⁾

『중산천사공사기』	1924년 보천교를 나온 李祥昊가 1925년 9월부터 김형렬을 방문하여 증산이 在世時에 말하고 행한 바를 직접 보고 들은 대로 자세히 필기한 것을 모으고, 전에 차경석에게 기록했던 것을 보태 저작겸발행자로 1926년 3월 5일 간행 ¹⁾
井邑 高夫人이 眼病으로 고통하고 차경석의 장남 熙南이 臥病함으로... 대흥리에 이르사 高夫人과 熙南의 병은 다 손으로 어루만져 낮게 하시니라.(94쪽-96쪽)	
『대순전경』 초판	이상호가 편집겸발행인으로 1929년 7월 30일 발행함
선생이 가라사대 正히 습하도다. 陰과陽을 말할 諫에 陰을 먼저 넘나니 이는 天地奉니라 하시며 또 가라사대 藥藏은 곳 安葬權이며 또 神櫃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니조회를 뜨들 날이 速히 이르러야 하리라 하시니라.(6장 34절) ...또 박공우에게 곤봉을 들니사 경석을 난타하며 마음을 변치 아나하겠나냐 하여 다짐을 바드시고 高夫人에게 巫度를 붓치시니라.(6장 60절) 또 고부인에게 일너 가라사대 내가 업스면 여덟가지 병으로 엇더케 고통 하리오, 그 중에 丹毒이 크리니 이제 독괴를 제거하리라 하시고 그 손등에 춤을 받으시니라. 또 일너 가라사대 내가 업스면 그 크나큰 세 살림을 엇더케 홀로 맞터서 처리하리오 하시니, 高夫人은 어느 外處에 出行 하실 말삼으로 알엇더라.(12장 3절)	
『대순전경』 2판	이상호가 편집겸발행인으로 1933년 8월 15일 발행함
고부인에 대한 기록은 초판과 동일함	

13) 김탁, <중산교學>, (도서출판 미래향 문화, 1992), 218쪽

『대순전경』 3판	이상호가 저자로서 1947년 12월 22일 발행함
<p>…또 가라사대 내일은 首婦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 네가 일을 하려거든 首婦를 들여 세우라 하시니라. 경석이 천사를 모시고 돌아와서 그 姨從妹 高夫人을 천거하니 이날이 동짓달 초사흔날 이러라.(3장 23절)</p> <p>…이 뒤에 대흥리에 가사 고부인더러 일러 가라사대 藥藏은 네 籠바리가 되리라 하시니라.(4장 64절)</p> <p>하로는 고부인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고 친히 長鼓를 치사 가라사대 이것이 天地곳이니 너는 天下一等무당이요, 나는 天下一等才人이라. 이 黨 저 黨 다 버리고 巫黨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 하시고 困하여 巫黨 度數를 북이시니라.(4장 103절)</p>	

『대순전경』 4판	이상호가 저자로서 1949년 2월 15일 발행함. 3판과 동일함
-----------	-------------------------------------

『대순전경』 5판	이상호가 저자로서 1960년 5월 20일 발행함
고부인에 대한 기록은 3판과 동일함.	

『대순전경』 6판	이상호가 저자로서 1965년 12월 22일 발행함
<p>하루는 臨陂 五聖山에 가셔서 칭찬할 만한 곳이라 하시니라.(3장 8절)</p> <p>冬至 初三日 천사께서 고부인을 맞아 결혼하실 새 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동안 精力을 드렸나니 이로부터 天地大業을 네게 맡기리라”하시고...(3장 31절)</p> <p>因하여 부인에게 모든 일을 가르치시며 文命을 쓰실때에도 반드시 부인의 손에 붓을 쥐게 하시고 天師께서 등뒤에 겹쳐 앉으사 부인의 손목을 붓드러 쓰이시니라.(3장 32절)</p> <p>천사 輪七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네 妹氏를 잘 공양하라. 네 妹氏가 굶으면 천하사람이 모두 굶을 것이요, 먹으면 천하사람이 다 먹을 것이요, 눈물을 흘리면 천하사람이 다 눈물을 흘릴 것이요, 한숨을 쉬면 천하사람이 다 한숨을 쉴 것이요, 기뻐하면 천하사람이 다 기뻐하리라 하시니라.(3장 124절)</p> <p>천사께서 매양 고부인의 등을 어루만지시며 가라사대 너는 福童이라. 장차 천하 사람의 頭目이 되리니 속히 道通을 하리라 하시니라(3장 127절)</p> <p>...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나이는 스물 아홉이요, 내 나이는 설흔여덟이라. 내 나이에서 아홉살을 滅하면 내가 너 될 것이요, 네 나이에서 아홉을 더하면 내가 나 될지니, 곧 내가 너되고 네가 나 되는 일이니라 하시니라.(4장 64절)</p> <p>하루는 천사께서 반드시 누우신 뒤에 부인으로 하여금 배 위에 걸터앉아 칼로 배를 겨누며 나를 일등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 주시렵니까 라고 다짐을 받게 하시고 천사께서 허락하여 가라사대 大人의 말에는 천지가 쨍쨍 울려 나가나니 오늘의 이 다짐은 털끝만치도 어김이 없으리라 하시고 李道三 林正俊 車京石 세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시니라.(4장 66절)</p> <p>...이 뒤로는 天師께서 모든 일을 경석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부인과 의논하여 조처하시니라.(4장 69절)</p> <p>하루는 천사께서 마당에 말을 엮어놓고 그 위에 요를 깔고 왼손에 칼과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앉으사 부인으로 하여금 땅에 앉게 하신 뒤에 말을 가르치시고, 다시 夫人으로 하여금 칼과 망치를 들고 말 위에 앉게 하시고 天師께서 땅에 앉으사 부인에게 말을 가르키시니라.(4장 116절)</p> <p>하루는천사께서 南을 등지고 北을 향하여 스시고 부인으로 하여금 北을 등지고 南을 향하여 스게 하신 뒤에 그 가운데 술상을 차려놓게 하시고 무수히 글을 써서 술상 위에 놓으시고 부인과 함께 서로 절하시니라.(4장 117절)</p>	

『대순전경』 7판

이후의 판은 6판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략함

지금까지 『증산천사공사기』와 『대순전경』의 초판에서부터 6판까지 기록한 고부인에 대한 내용을 논자는 眞假를 가리지 않고 그 흐름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고부인이 종교활동을 시작한 1911년부터 1935년 仙化하기까지 고부인의 종통계승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상제의 말씀에 의한 문헌적 근거가 없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학자들이 찾는 종통계승의 근거는 고부인이 선화하고 12년이 지난 1947년 『대순전경』 3판 3장 23절과 4장 103절에 처음으로 상제의 말씀이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1965년에 발행된 『대순전경』 6판은 이런 내용이 대폭 증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논자가 추정하면 상제를 신봉하는 증산교의 敎徒들이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종통의 정통성에 대한 認知度가 깊어진 것 같다. 만약에 증산교의 敎徒들이 이를 미리 깊이 인식하였다면 서둘러서 종통의 根據作業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런 작업이 1947년 이후부터 구체화되는 것을 보면 교단이 형성되던 초기에는 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었던 같다. 따라서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여러 교단이 分化되어 종통의 정통성을 주장하니 종통의 맥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상제의 화천 후 종통의 직접적인 계승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정황상 고부인이 그 종통적 주장을 용이하게 하므로 그 맥락을 잡고 『대순전경』은 판을 거듭할수록 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의하면 고부인은 經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교단을 創立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고부인의 종교활동은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부분을 『甌山敎史』는 고부인의 종교활동의 시작이 순수한 영적 체험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증산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고부인은 상제의 화천을 몰랐고, 상제의 1909년 음력 6월 24일의 화천을 1910(庚戌)년 9월에 영적 체험으로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친자종도들이 왜 고부인에게 상제의 화

천 사실을 숨겼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논자가 추정하기에는 종통의 계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친자종도들에게 직접적인 종통계승을 하지 않고 상제께서 화천하시니 친자종도들은 주변 정황상 자연히 宗脈이 고부인으로 이어지므로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숨겼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논의의 초점은 종지를 통한 종통의 정당성을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여기서 도주 조정산과 고부인의 종교활동의 시작은 순수한 종교적인 영적 체험에서 비롯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영적 체험에도 분명히 對比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즉, 佛家의 天眼通·天耳通·神足通·他心通·宿命通·漏盡通의 6통 중 奇行·異蹟을 행하는 通보다 진리를 體得하는 누진통을 가장 중시 여겼다. 따라서 도주와 고부인의 영적 체험에서 누진통의 부분을 찾아보면 『典經』 교운 제2장 6절에 ‘도주께서는 九년의 공부 끝인 정사(1917)년에 상제의 삼계 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感悟)하시도다’가 나타나지만 『甌山敎史』의 고부인의 종교행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나중에 종지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고부인은 1911(辛亥)년 親炙從徒를 소집하여 敎團 創立을 宣言한 후 여러 從徒들에게 布敎를 命¹⁴⁾하고부터 1916(丙辰)년까지의 종교활동을 살펴보면 고부인에 의해 定해진 종단의 명칭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제의 종교적 진수에 대한 언급을 『甌山敎史』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1918년 9월 종교활동을 재기하기까지 차경석에 의하여 敎徒들과 對面이 끊어진 상태에서 종교의 종지를 발표하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고수부는 1918년 9월 19일 대흥리를 떠나 金堤郡 白山面 宋森里 千鍾瑞의 집으로 옮겨가 종교활동을 재기하였다. 그렇지만 1918년부터 仙化(1935)하기까지 고부인의 종교활동을 살펴보면 고부인이 직접적으로 종단의 명칭과 종지를 정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지 고부인의 교도 간부인

14) 李正立, <甌山敎史>, (甌山敎本部, 1977), 45-46쪽

15) 李正立, <甌山敎史>, (甌山敎本部, 1977), 51쪽에, 高夫人이 모든 일을 安頓한 뒤에 親炙從徒들을 召集하니 從徒들이 모여와서 夫人의 神通力을 보고 모두 놀라며 異常히 여겼었다. 이에 高夫人이 敎團을 創立한다고 宣言하고 大興里 京石의 집을 本所로 指定하고 여러 從徒들에게 命하여 布敎에 從事케 하였다.

高旻煥이 쓴 『仙政圓經』이라는 책에 교사와 교의를 밝히고 있지만 그 교의 내용인 ‘戒銘十條’·‘六大報恩’·‘悟道修行要目’·‘六和銘心’·‘修道諸益要覽’¹⁶⁾은 인간의 修行에 초점을 국한시키고 있지, 신과 인간에게 모두 적용되는 우주적 차원의 법칙적 教義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곧이 고부인이 직접 발표한 교의를 찾아본다면 1928(戊辰)년 5월에 간부들을 불러모은 뒤에 부인이 7項目的 戒箴을 頒布하였지만¹⁷⁾ 그 내용 모두는 인간을 訓誨하는 것이니 상제의 종교적인 진수를 밝혔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車京石의 宗教活動과 宗旨

車京石(1880-1936)은 1880(庚辰)년 전라도 興德郡 扶安面 壺岩里에서 출생하였다.(普天教誌 387쪽) 그는 다음의 기록의 의하면 1907년 5월부터 상제를 따라왔던 親炙從徒이다.

정읍(井邑) 사람 차 경석(車京石)이 정미년 오월에 처음으로 상제를 배알하였느니라. 이 때 상제께서는 용암리(龍岩里) 수침막(水砧幕)에 머물고 계셨도다. 그는 원래 동학 신도였으나 일진회 전주 총대를 지낸 사람이라. 그는 전주 재무관과의 소송관계로 정읍에서 전주로 가던 길에 점심을 먹으려고 용암리 주막에 들렀는데 이 때 상제께서도 김 자현(金自賢)과 몇 종도를 데리고 이 주막에 들르셨도다. 경석은 상제의 의표와 언어 동작을 살피고 그 비범하심을 알고 예를 갖추어 말씀을 청하는지라. 상제께서 그를 태연히 대하시니 그는 여쭙어 말하기를 “무슨 업을 행하시나이까.” 상제께서 웃으시면서 “의술을 행하노라”고 말씀을 건네시고 술을 마셨도다. 그러시다가 상제께서 계탕 한 그릇을 그에게 권하시니 그가 받은 뒤에 그릇에 벌 한 마리가 빠져 죽거늘 경석이 수저를 멈추고 혹 상서롭지 못한 일이 아닌가 망서리고 있는 것을 상제께서 보시고 “벌은 규모있는 벌레니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속으로 감복하는도다. 그는 상제께 서류를 꺼내어 보이면서 그 곡절을 여쭙고 “세 사람이 모이면 관장이 송사를 처결한다 하온데 선생님께서 판단하여 주소서”하고 상제를 시험코자 답을 청하는지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의 곡

16) 洪凡草, <汎甌山教史>, (도서출판 한누리, 1988), 50-54쪽

17) 李正立, <甌山教史>, (甌山教本部, 1977), 263-264쪽에, 一. 남에게 칩짓지 말라. 二. 거짓말을 하지 말라. 三. 자존심(自尊心)을 갖지 말라. 四. 도적(盜賊)질 말라. 五. 간음(姦淫)하지 말라. 六. 무고(無故)히 살생(殺生)하지 말라. 七.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자기(自己)의 허물을 생각하여 천지(天地)에 사죄(謝罪)하라.

적은 여하간에 원래 대인의 일이 아니라. 남자가 마땅히 활인지를 찾을 지언정 어찌 살기를 떠리요” 하시니 경석은 더욱 위대하심에 감복하여 곧 소송 서류를 불사르고 사사하기를 청하면서 머물고 계시는 곳을 묻는도다. 이에 상제께서 “나는 동역객 서역객 천지 무가객(東亦客西亦客天地無家客)이다”고 하시니라. 경석은 머물고 계시는 곳을 모르고 헤어지면 다시 배알할 기회가 없을 것을 짐작하고 날이 저물어 상제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기다려 그 뒤를 좃으니라. 당은 곳이 요암리(龍岩里) 물방앗집이니라. 경석은 그 식사와 범절이 너무 조출하여 한시도 견디기 어려워 하였도다.(『전경』 행록 제3장 37절)

경석이 그 물방앗집에서 열흘 동안 묵으면서 상제께 정읍으로 가시기를 간청하였으되 상제께서 응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고 때로는 능욕하시기도 하고 구축도 하여 보셨느니라. 그래도 경석은 끝끝내 떠나지 아니하므로 상제께서 “그럼 네가 나를 꼭 따르려거든 모든 일을 전폐하고 내가 하라는 일에만 전력하여야 할지니 너의 집에 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유월 초하루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 그러면 함께 가리라”고 이르시니 그는 곧 돌아가서 가사를 대략 정리하고 그 날짜에 용암리에 다시 와서 상제께 배알하고 정읍으로 가시기를 또 청하는도다. 상제께서 불응하시다가 사흘 후에 허락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이 잠기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위적거리다 헤엄쳐서 겨우 발목이 닿는 물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시 깊은 물로 끌어들이려 하는도다”고 하셨도다.(『전경』 행록 제3장 38절)

차경석에 대한 종교활동 과정을 김탁은 다음과 같이 『증산교學』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차경석은 28세되던 1907년 5월에 증산을 따르게 되었으며, 증산을 따른 기간은 약 2년 중도에 불과하나 타고난 기국이 크고 신앙심이 두터워 증산의 신임을 받았다고 전한다. 증산 사후 교단을 처음으로 조직한 고부인과는 姨從간으로 당시에 교단총찰의 책임을 맡았었고, 마침내 1916년冬至에 24방주를 임명하여 교권을 장악하였다. 1919년 여름에 새로운 교리해석으로¹⁸⁾ 교도가 급격히 늘자 이 해 10월에는 60방주를 조직했으

18) 李正立, <甌山教史>, (甌山教本部, 1977), 60-62쪽에; 1918(戊午)년 高夫人의 敎團離脫. 日本警察의 信徒들에 대한 大暴壓. 1919(己未)년 櫃의 紛失은 信徒들의 動搖를 일으켰다.

이에 蔡奎一·李祥昊·文正三 세사람이 協力하여 信徒들을 收拾하여 敎勢를 挽回하려할새 布敎方法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從來로 고부인에게 집중되었던 신도들의 信賴感情을 경석에게 옮기기에 힘을 들였다. 從來로 光明修鍊에 依存한 포교방법은 매양 경석에게 對한 非難攻擊의 氣勢을 올리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것을 虛靈이라하여 排斥하고 규일이 考案한 書傳의 弘範圖解와 金一夫의 正易八卦와 鄭樞秘訣과 風水設등을 巧妙하게 連結敷衍한 說敎로써 포교의 새 방

며, 1921년에는 경남 황석산에서 天祭를 올리고 교명을 普化, 국호를 時로 하여 告天하기에 이른다. 그후 일제의 탄압으로 1922년에는 교단을 공개하면서 교명을 普天敎로 바꾸었으며¹⁹⁾, 1924년에는 時國大同團을 조직하여 포교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1928년에는 증산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유교부흥운동으로 信路를 변경시킨다.²⁰⁾(『증산교學』 204-205쪽)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차경석은 1919년 신도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상제에서 고부인으로 이어지는 宗脈을 고부인의 교단 이탈을 계기로 하여 상제에서 차경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합리화 시켰다. 이는 차경석의 종교적인 信念을 엿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즉, 교단의 창립과 형성의 주역은 고부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고부인을 부정하고 자신을 종통의 주체로 떠올린다는 것은 道理的 측면에서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921년에 天祭를 올리면서 告한 敎名 ‘普化’를 일제의 탄압이 두려워 ‘普天’으로 改名한 것도 종교적인 信念을 볼 수 없는 일이다. 더 나아가서 1928(戊辰)년 설법 후 상제의 강세와 화천 치성을 치성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상제에 대한

법을 正하였다.

19) 洪凡草, <汎甌山敎史>, (도서출판 한누리, 1988), 90쪽에, 황석산에서 告天한 普化敎라는 교명이 세상에 선포되기 전에 普天敎라는 명칭으로 바뀐 까닭은 무엇인가, 신유(辛酉 1921)년 8월에 경기도 일본경찰부에서 李祥昊를 체포하여 40여 일 동안 구속 취조한 뒤에 高等課주임 田邊鎬가 고등과장 藤本源市와 협의하고 이상호에게 교단의 공개를 권고하고 석방하였다. 이상호는 석방된 즉시 任實에 가서 차월곡을 면회하고 전번호의 권고를 전달하고 방주 수십명을 모아 교단공개문제를 토론하니 의론이 百出하여 사흘동안 토론하여도 결정되지 못하다가 차월곡이 夢事가 길하다하여 교단공개를 명령하고 교단공개에 관한 전권을 이상호에게 위임하였다.(증산교사 90쪽)

이상호가 車敎主에게 총독부에 제시할 敎名을 물었을 때 차교주는 普化敎로 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상호는 官의 의심을 받을까 저어하여 告天祭에서 告天한 보화교의 머릿자와 당시에 공인된 종교로서의 天主教와 天道敎등의 머릿자를 취하여 普天敎라는 敎名을 내기에 하였다.

20) 洪凡草, <汎甌山敎史>, (도서출판 한누리, 1988), 180-131쪽에, 李英浩는 그가 저술한 普天敎沿革史下卷의 첫머리에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무진(戊辰 1928)년 정월 4일 차교주가 교도 수백명이 모인 앞에서 河圖와 洛書를 걸어놓고 陰陽進退消長の 이치와 天地人配合의 道를 3일간 說法 하셨다. 이때 말씀하시기를 보천교는 포교 이래로 或者의 傳道誤謬로 인하여 虛靈迷信의 說에 기울어지는 폐단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東洋道德의 正宗이 되는 원리를 전세계에 褒揚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차교주의 이 무진년 정월 초 나흘의 설법은 후일 보천교인들은 무진설법이라고 한다. 이 무진설법이 있는 후 年中 七大致誠이 정월1일, 정월3일, 春分, 夏至, 8월15일, 秋分, 冬至로 정해졌다.(普天敎沿革史 下 1面) … 무진설법 직후에 改定된 7대치성일 가운데 증산대성의 탄강일과 化天日이 치성일에 제외된 것은 보천교의 信路變更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신앙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이 된다.

이는 차경석이 상제의 종교적인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차경석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표된 증지는 상제를 신앙하는 종교활동 기간(1911-1928)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굳이 상제를 신앙하는 教義가 있다면 教徒 몇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차경석의 종교적 역량에서 비롯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²¹⁾

3. 金亨烈의 宗教活動과 宗旨

金亨烈(1861-1932)은 1861년에 출생하였지만 출생지에 대한 문헌적 기록은 없다. 그는 다음의 기록에 의하면 1894(甲午)년 東學革命을 전후하여 상제와 인연을 맺은 최초의 親炙從徒이다.

이 해(1894)에 고부인(古阜人) 전 봉준(全琿準)이 동학도를 모아 의병을 일으켜 시정(時政)에 반항하니 세상이 흉동되는지라. 이 때에 금구인 김형렬(金亨烈)이 상제의 성예를 듣고 찾아 뵈인 후 당시의 소란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글 읽으시기를 청하므로 글방을 폐지하고 전주군 우림면 동곡(全州郡雨林面銅谷) 뒷산에 있는 학선암(學仙庵)으로 가셨으나 그 곳도 번잡하기에 다른 곳으로 떠나셨던 바 그 곳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도다.(『전경』, 행록 제1장 21절)

그에 대한 종교활동을 살펴보면 그는 1911년 고부인 창립한 대흥리 교단에서 활동하다가 1914년 차경석과의不和로 대흥리 교단을 떠났다. 그는 1914년 가을에 상제의 本夫人 鄭氏를 데려다가 修鍊을 시켜서 神力을 통하게 되면 받들어 세워서 새로운 교단을 세우려고 계획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인이 修鍊席에서 失眞하므로 失敗하고 본인이 직접 교단을 만들었다.²²⁾ 그 후의 활동은 『증산교學』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다.

21) 洪凡草, <汎巔山敎史>, (도서출판 한누리, 1988), 136쪽에, 月谷(차경석)은 村山智順과의 問答記에서 보천교 후기 교단의 教義는 교조의 遺訓를 받은 大仁大義라고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촌산 문기를 曾前에 敎理를 一心·相生·去病·解冤·後天仙境이라고 한 말이 있었는데 正當한 敎理가 아닙니까?” 차교주 답하기를 “정당한 교리가 아니라 李祥昊의 말입니다.”

22) 김탁, <증산교학>, (도서출판 미래향 문화, 1992), 63-68쪽

김형렬은 1918년에 전주 위봉사 주지인 광법경과 합의하여 위봉사 전주 포교당을 근거하여 교단의 재건을 위해 진력하였는데, 1919년 신도 수십 명을 데리고 금산사 미륵전에 가서 치성을 드리다가 독립운동자로 밀고를 받아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여섯달 동안이나 취조를 받기도 하였다. 1921년에는 불교진흥회를 조직하기도 하였으며, 1922년에는 불교진흥회를 미륵불교로 개칭하여 금산사내에 본부를 두었다.(『증산교學』 128-129쪽)

김형렬은 상제를 가장 오래 동안 모신 친자종도이며 종교활동 기간 중 많은 영적 체험이 있는 것으로 『甌山敎史』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형렬의 종교활동을 살펴보면 몇 가지 종통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발견된다. 첫째, 1914년 고부인이 창립한 대흥리 교단을 떠나 정부인을 받들어 교단을 세우려고 한 의도 자체는 김형렬 자신도 종통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상제께서 전하는 道가 仙·佛·儒의 진수를 뽑아 만든 천지대도인데 敎名을 1921년의 ‘불교진흥회’, 1922년의 ‘미륵불교’로 한 것은 천지대도를 일부의 도 즉, ‘불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데 있다. 이는 김형렬이 대도의 이치를 전부 파악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김형렬은 종교활동 기간 중 영적 체험으로 많은 영서를 남겼다고 전하지만 구체적으로 상제의 종교적인 진수를 파악하여 그 내용을 표명한 기록이 없다. 즉, 종지의 발표가 없는 것이다. 넷째, 1932년 10월 김형렬이 사망한 후 미륵불교의 종교활동이 이어지지 않고 해산되었다는 것이다.

4. 安乃成의 宗教活動과 宗旨

安乃成(1867-1949)은 1867년 慶南 咸安郡 伽倻面 道音谷에서 출생하였다. (『범증산교사』 196쪽의 柳永柱구술) 그는 상제와 인연을 맺은 처음 시기를 『典經』에서 찾기는 어렵다. 단지 柳永柱의 口述에 의하면 1907년 음력 6월 22일 상제를 처음 뵈고 侍從하게 되었다고 하며 상제를 따르던 親炙從徒이다. 그는 고부인이 창립한 대흥리 교단에서 포교에 종사하다가 1914년 차경석과 불화하여 교단을 이탈하여 전남 여수에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다.²³⁾ 그는 상제의 首弟子로 自處하면서 상제의 권한을 물려 받았다고 하

여 포교에 힘을 기울였다. 그 후 1929(己巳)년 겨울에 보천교를 탈퇴한 文正三·蔡奎一이 가입함에 교세는 커진 후 안내성은 1930(庚午)년에 정식으로 교명을 ‘甌山大道教’라고 말하고 ‘三大宗旨’²⁴⁾와 ‘八條信仰要目’을 발표하였다.²⁵⁾

지금까지 안내성의 종교활동에서도 종통을 주장함에 의문이 가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안내성이 상제의 수제자이며 상제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안내성은 상제 화천후 고부인이 창립한 대흥리 교단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바로 종교활동을 시작하여야만 경우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1914년 대흥리 교단을 이탈한 후 1930년까지 16년의 종교활동 기간에 종지의 발표가 없었다는 데 있다. 즉, 1928년 차경석이 상제를 향한 信路를 儒道로 전향함으로 그에 반발하여 보천교를 이탈한 채규일과 문정삼이 1929년 가입하면서 1930년에 종지 발표가 있다는 것이다. 본래 채규일과 문정삼은 1919년 차경석을 도와서 종통과 교의를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의문이 가는 일이다. 셋째, 1926년에 도주 조정산의 종지 표명보다 4년이 늦은 증산대도교의 종지 — 시봉 천지인·통솔 선불유·일심 성경신 — 는 우주의 대도를 표명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증산대종교의 종지는 우주를 변화시켜나가는 법칙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5. 그 외 宗徒들의 宗教活動과 宗旨

상제를 侍從하였던 親炙從徒 朴公又·金京學·文公信등도 상제 화천후 종교활동을 하였지만 교단의 명칭도 없고 더 나아가 종지의 표명도 문헌의 기

23) 李正立, <甌山敎史>, (증산교본부, 1977), 68-69쪽

24) 삼대종지(三大宗旨)

- 시봉(侍奉) 천지인삼신(天地人三神) <하늘의 상제(上帝), 땅의 후토(后土), 사람의 선영(先靈)>
- 통솔(統率) 선불유삼도(仙佛儒三道) <선도(仙道)로써 심령(心靈)을 수련(修鍊)하고, 불도(佛道)로써 육체(肉體)를 양생(養生)하고, 유도(儒道)로써 범절(凡節)을 이행(履行)함>
- 일심(一心) 성경신삼자(誠敬信三字) <신도(神道)에 기도(祈禱)를 일심(一心)하고, 인도(人道)에 이행(履行)을 일심(一心)함>

25) 李正立, <甌山敎史>, (증산교본부, 1977), 180쪽

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甌山·金京學·張基準·柳春來로 宗脈의 系譜를 삼고있는 '順天敎史'에도 종지를 찾아 보기가 어렵다. 또한 非親炙從徒로서 교단을 창설한 許曄은 1928년 윤2월에 '三德敎'라는 敎名을 표명하였지만 허욱 생전에 종지의 발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타 여러 사람들이 상제를 신봉하였지만 교단형성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교단을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교명을 만들지 못하고 해산된 경우가 많고, 또 교명을 가진 종단을 형성하였지만 종지를 내세우지는 못하였다.

Ⅲ. 道主 趙鼎山의 天賦的 宗教性

종교활동에서 종지의 표명은 종교 지도자의 종교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각 종교지도자의 종지 발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 보았다. 그 이유는 각 종교지도자가 上帝의 종교적인 眞理를 體得하였는지 그 與否의 尺度가 되기 때문이다.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행할 때 여러 천자종도들이 상제를 侍從하면서 상제의 종교적인 권능과 언행을 듣고 보았지만 누구도 상제의 종교적인 眞髓를 파악하여 종지로서 표명한 기록이 1925년 4월 28일 以前에 없다는데 宗旨는 宗統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종지 表明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제를 신봉하는 종단의 '宗團史'에서 종지를 처음으로 표명한 연대와 종단은 1922년 보천교이다. 그렇지만 보천교의 차경석은 무진(1928)설법 이후에 村山智順과의 問答記에서 "1922년 표명한 종지는 李祥昊의 말이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상제의 종교적인 진수를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밝혀진 첫 종지의 표명은 도주 조정산이 되는 것이다.

도주께서 종교적인 信念과 覺性에 의해 처음으로 종지를 발표하셨다. 그러면 도주께서 종지를 표명하기까지 종교적인 교육 여건이 도주의 주변에 형성되어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도주께서 所定의 교육에서 비롯한 종교적인 역량인지 아니면 天賦的으로 타고난 종교적인 역량인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1. 誕降에서 奉天命까지의 宗敎狀況

道主 趙鼎山은 1895(乙未)년 慶尙道 漆原縣 西面 會文里 현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에 誕降하셨다.²⁶⁾ 그리고 十五歲(1909 己酉)때 음 4월 28일 부친과 함께 경상남도 昌原驛에서 기차를 타고 만주로 가셨다.²⁷⁾

그러면 1895년부터 1909년까지 도주의 敎育 情狀을 살펴보면 근대 서양식 敎育은 일본이 한일합방(1910) 이후에 도입한 敎育제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은 근대식 敎育은 全無하였다. 즉, 20세기초(1900-1910)는 정치적 혼란·경제적 빈곤·외국 열강의 침범으로 조선은 민중에 대한 配慮가 全無한 시대이다. 그러므로 도주께서 근대식 敎育을 받을 기회는 전혀 없을 것이고, 단지 祖父가 弘文館正字(經書와 史籍의 관리)이셨기 때문에 漢學에 대한 깊은 공부는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부께서 도주의 나이 11세시(乙巳 1905)에 국운이 기울어져감에 통탄한 나머지 피를 토하고 분사²⁸⁾하셨기 때문에 도주의 한학에 대한 깊은 공부도 가능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단지 兩班家의 子弟로서 한학의 기초적인 敎育은 가능하였지만 정치적인 혼란·국운의 불안·敎育의 열악한 조건(지금도 회산리는 타 지역에 비해 문화의 발전이 느림)·어린 나이 등으로 도주의 학문적인 깊은 성숙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15세시 부친을 따라 만주로 간 것은 학문적 여행이 아니라 일본의 감시를 피해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부친을 따라 갔기 때문에 敎育 여건은 더욱 열악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어린 나이의 도주께서 열악한 敎育 情狀에서 상제의 종교적인 면에 관심을 가질만한 여건은 어떠하였을까? 결론은 전무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첫째, 상제의 종교활동 영역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둘째, 상제의 천지공사란 종교 행위가 포교의 성향이 없고 셋째, 정읍과 함안의 직선 거리는 150km 넘고 넷째, 지리산의 주산맥이 정읍과 함안이란 두 지역을 가로막고 있고 다섯째, 1909년까지 조선의 철도는 창원과 부산에서 신의주행 철도만 있었기 때문에 서로 쉬운 왕래 수단이 없고 여섯째, 그 밖에

26) <전경> 교운 제2장 1절

27) <전경> 교운 제2장 7절

28) <전경> 교운 제2장 2절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신문·전보·책)가 1909년까지 함안지역에서는 형성되지 않았고 일곱째, 도주의 나이가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무 적은 나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제의 직접적인 종교활동을 접하거나 들을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도주께서는 1895년부터 1909년(15세)까지 조선에서 人脈에 의한 상제와 직·간접적 만남이 전무한 상태로 만주에 가셨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奉天命에서 歸國까지의 宗教狀況

도주께서 15세(1909년)부터 23세(1917)까지의 중국망명 생활에서의 교육정황은 어떠하였을까? 결론은 최악의 교육여건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혼란한 국제 정세에 망국의 한을 가진 조선 한민족의 최대 관심사는 나라를 다시 찾는 것이므로 남의 나라에서 다른 것은 거의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최악의 환경적인 정황에서 인간 교류에 의한 상제와의 만남은 어떠하였을까? 결론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첫째, 상제께서 1909년 화천후 1911년까지 종도들에 의한 종교활동이 없었고 둘째, 1911년부터 1916년까지는 교단을 형성하는 시기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한 『甌山敎史』에 해외 포교에 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고 셋째, 포교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대흥리 교단에서의 1916년은 차경석이 교권을 장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혼란이 야기되므로 교단 내부를 정비하는데 시간과 관심이 투자되는 세월이었고 넷째, 차경석의 포교 방법은 1919년까지 태을주 수련에 의한 영적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의의 전달이 없었고 다섯째, 차경석이 교권을 장악한 1916년부터 도주께서 종지를 표명할 수 있는 진리를 大覺하신 해인 1917(丁巳)년 음력 2월 10일까지는 1년간의 세월인데 교통과 정보전달 수단의 발전이 전무한 조건에서 일본의 감시와 탄압이 주어지는 가운데 1000km 넘는 만주까지 종교적인 역량이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17(丁巳)년 음력 2월 10일 도주의 종교적인 大覺은 상제에 대한 외부적인 어떠한 정보와 교육이 없는 순수한 靈的 自覺이었다

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도주께서 만주에서 상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리라는 추측의 글을 『甌山敎史』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철제(趙喆濟)는 경상남도(慶尙南道) 함안군(咸安郡) 사람이라 어려서 부친(父親) 용모(鏞謀)를 따라서 만주(滿洲) 유하현(柳河縣)에 이주(移住)하였다가 신도(信徒)를 만나서 태을주(太乙呪)의 수련(修鍊)을 받았었다. 병진년(丙辰年)에 귀국(歸國)하여 충청남도(忠淸南道) 안면도(安眠島)에 거주(居住)하다가 마침 그 지방(地方)을 순회(巡廻)하던 이치복(李致福)을 만나서 천사(天師)의 행적(行蹟)에 관(關)한 강화(講話)를 듣고 정읍군(井邑郡) 우순면(雨順面) 마동(馬洞)으로 이주(移住)한 뒤에 친자 종도(親炙從徒)들을 찾아서 천사(天師)의 행적(行蹟)을 연구(研究)하기에 노력(努力)하였다.(『증산교사』 69-70쪽.)

여기서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주께서 신도를 만났다는 추상적인 표현만 있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사실과 도주께서 귀국은 1917(丁巳)년 4월인데 위 글에서는 병진(1916)년으로 적고 있다는 것은 도주에 대한 연구와 정보의 검증이 없이 단지 도주 조정산의 국내 종교활동만 보고서 저자의 막연한 추측에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甌山敎史』가 적고 있는 도주에 대한 다른 내용도 대다수 맞지 않기 때문에 도주에 관한 기록은 信憑性이 없다고 생각된다.

3. 歸國에서 宗旨 發表까지의 宗教狀況

도주께서 1917(丁巳)년 2월 10일 구천상제의 三界大巡의 진리를 感悟하신 후, 구천상제로부터 조선으로 돌아가 태인에서 구천상제를 찾으라는 命을 받으셨다.²⁹⁾ 그리고 啓示를 받은 도주께서는 바로 1917년 4월에 친계 가족을 거느리시고 만주 봉천을 떠나 뱃길로 태인으로 향하였다. 그렇지만 도중에 폭풍을 만나 서산 태안에 닿으니, 도주께서 그 곳의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상제의 가르친 곳을 찾았지만 아닌 듯 하여 安眠島로 옮겼었다.³⁰⁾

지금까지 도주의 歸國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보면 앞 절에

29) <전경> 교운 제2장 6절, 8절

30) <전경> 교운 제2장 9절

서 도주의 만주 생활에서 종교적인 상황을 고찰하였다. 이 고찰에 의하면 도주께서는 구천상제의 영적 만남 이외에는 구천상제에 대한 人緣의 아무 정보도 없이 만주를 출발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도주께서는 15세 때 회문리에서 기차를 이용하여 바로 만주로 가셨기 때문에 전라도의 地理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가 없었을 것이다. 또, 만주에서 뱃길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귀국 도중에 구천상제를 따르던 종도를 만날 기회는 全無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폭풍을 만나 忠淸南道 태안에 도착한 것을 도주께서는 상제의 引導로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그 지역을 두루 살피신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전라도 지리의 정보가 없으신 도주께서 살펴보신 결과 아닌 듯 하여 구천상제의 다음 명을 기다리기 위하여 태안과 가까운 충청남도 안면도로 옮겨 일시적으로 정착하신 것 같다. 여기서 논자가 볼 수 있는 것은 도주께서 고국에 일단 정착한 안면도는 구천상제의 친자종도들의 포교가 미치기 어려운 섬이다. 그러므로 안면도에서 인맥에 의해 구천상제에 대한 말을 듣기까지 도주와 구천상제의 만남은 순수한 영적 교류만 있었을 것이다. 이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918년부터 전라도에서 구천상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간접적인 만남은 구천상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구천상제와 도주의 영적 만남에서 구천상제로부터 받은 계시를 確認하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종교적인 정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주의 안면도 생활에서 1925년 4월 종지를 표명하기까지 도주의 종교활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러한 면을 보고자 『典經』을 통하여 도주의 종교활동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眞經』과 기타 책을 검토하였지만 『典經』의 사실과 다르거나, 기록이 漏落되었거나, 공부를 칭하는 표현이 다르거나, 공부기간이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직 부족하지만 『典經』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표2> 丁巳(1917)年부터 乙丑(1925)年까지 道主의 宗教活動

<p>1917(丁巳)년</p>	<p>4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p>	<p>-만주를 떠나 뱃길로 태안을 향함 -충청남도 서산 태안에 도착 -충청남도 안면도로 옮김 -正當里 느락골에 宇一齋를 마련하고 공부하심 -李正律의 삼십여명이 도주를 좇음</p>
<p>1918(戊午)년</p>	<p>가을 ?월 ?일 10월 ?일 ?월 ?일</p>	<p>-상제께 치성을 올림. 원평을 향함 -구릿골 약방에 도착 -모악산의 대원사에 이룸. 대원사에서 몇달 동안 계심 -안면도에서 황새마을의 권씨 집으로 이사함</p>
<p>1919(己未)년</p>	<p>1월 15일 ?월 ?일 ?월 ?일 7월 15일 9월 4일 ?월 ?일</p>	<p>-정읍 馬洞 김기부의 집에서 상제의 누이동생 선돌부인으로부터 封書를 받음. 보름동안 머무 시다가 황새마을로 가심 -선돌부인이 천지도수의 조화둔계를 찾을 것을 도주에게 제안 -通士洞 李俊世의 재실에서 도수를 보심 -百鍾日에 금산사에 다녀오심 -보천교 본부에 있는 遁계를 가져옴 -扶安邊山 굴바위에서 공부하심</p>
<p>1920(庚申)년</p>	<p>?월 ?일 2월 17일</p>	<p>-재실에서 불면불식의 공부를 하심 -둔계가 봉안된 곳에서 벼락소리가 나더니 둔계가 저절로 열림</p>
<p>1921(辛酉)년</p>	<p>3월 27일 7월 7일 9월 5일 9월 19일 9월 20일</p>	<p>-종도들에게 칠성경을 외우게 하시고 도주께서 대원사에 들어가셔서 백일도수를 시작 -대원사에서 백일도수를 마침 -구릿골에서 통사동 재실로 상제의 성골을 모심 -재실에 모여 치성을 올린후 도주께서 “時時默誦空山裡 夜夜閑聽潛室中 分明造化成功日 堯舜禹王一切同”이라 말씀하심 -재실에서 매일 밤낮으로 치성을 올리고 공부하심</p>
<p>1922(壬戌)년</p>	<p>12월 그믐</p>	<p>-남월도수와 北玄武度數에 의해 상제의 성골과 금품을 도난당함</p>

<p>1923(癸亥)년</p>	<p>1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9월 ?일 10월 ?일</p>	<p>-함안 회문리를 순회하고 그 곳에서 잠시 머무심 -密陽終南山 洗川洞 金炳文의 집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종이에 글을 쓰셔서 둔도수라 하시고 석달동안 행함 -“금년이 利在新元 계해년이라”고 말씀을 마치고 傳敎를 내림 -淸道楡川의 朴東洛의 집에서 眞人步斗法의 단도수를 행함 -청도유천에서의 단도수를 마침 -청도의 磧川寺 도솔암에 있는 칠성각에서 단도수 공부를 시작함</p>
<p>1924(甲子)년</p>	<p>2월 중순 4월 ?일 여름 ?일 겨울 ?일 겨울 ?일 11월 ?일</p>	<p>-적천사에서 저녁 일곱시부터 아침 여섯시까지 일본일초도 어기지 않고 녉달동안의 단도수 공부를 마침 -태인 도장에서 치성을 올림 -밀양 종남산 영성정에 이르러 밤 열시부터 다음날 아침여섯시까지 폐백도수 공부를 시작 -영성정에서 다섯달의 폐백도수를 마침 -함안 반구정으로 옮겨서 폐백도수 공부를 계속 하심 -“庚은 變更之伊始하고 申은 神明之宜當이라 天於斯於庚申하고 地於斯於庚申이라 萬物終於庚申하고 我亦如是庚申이라”고 말씀하심</p>
<p>1925(乙丑)년</p>	<p>4월 28일</p>	<p>-无極道를 창도. 상제를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上帝로 봉안. 宗旨·信條·目的을 定함.</p>

<표1>에서 도주의 종교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주께서 1917년 안면도에서 초기 종단을 형성하는 과정의 기록이 나타난다. 이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구천상제를 신봉하는 초기교단들은 친자종도나 비친자종도를 가리지 않고 구천상제를 직접 접하였거나 아니면 人脈을 통하여 구천상제의 간접적인 만남을 가진 후 교단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도주께서는 23세(1917년) 때부터 안면도와 정읍사이에 정보의 전달수단과 徒步이외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인적 드문 외딴 섬에서 교단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지리적 정황으로 인하여 도주께서는 200km 이상 떨어진

정읍에 초기교단들이 형성되어 활동하는지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을 것이다. 또 『甌山敎史』를 찾아보아도 수수한 영적 만남에서 비롯하여 교단을 형성하는 환경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은 기록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23세란 젊은 나이의 도주의 초기종단의 형성은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짐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주의 안면도 종교활동이 1년이 지난 1918년 가을이 되어서야 人脈에 의해 구천상제와의 간접적인 만남을 갖는 기회를 맞이한다. 그리고 도주께서 구천상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1918년 가을부터 1922년까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923년 정월부터 종지를 표명하는 1925년 4월까지의 거의 모든 시간을 경상도 함안·밀양·청도에서 ‘둔도수’·‘단도수’·‘폐백도수’의 공부를 하루 온종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1918년부터 1922년까지의 모든 시간을 구천상제의 자료수집에 시간을 모두 할애하였는가를 살펴보면 ‘1918년 대원사의 몇 개월 공부’·‘1920년 통사동 재실의 불면불휴 공부’·‘1921년 대원사의 100일 공부’·‘1921년 통사동 재실의 공부’등을 減하고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3년 반정도가 된다. 그렇지만 기록에 없는 공부도 도주의 종교활동 내용으로 볼 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천교로부터 둔계의 운송문제와 상제의 성골을 모시는 문제와 매년 여러 번의 치성을 올리는 일등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구천상제에 대한 이야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구천상제의 일대기를 조사 정리하는 이상호의 작업은 1925년 9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종지의 표명보다 5개월 늦은 일이다.

그러므로 1917년 4월부터 1925년 4월 종지를 표명하기까지 친자종도들로부터 도주의 구천상제에 대한 이야기와 자료수집은 매우 빈약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종지를 표명하였다는 것은 도주의 종교활동에 또 다른 차원의 종교적인 해석이 가능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즉, 1917년 귀국부터 1925년 종지의 표명까지 도주께서는 어느 친자종도들도 보여주지 못한 宗教活動의 獨創性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IV. 끝머리

비겁(否劫)에 빠진 神明과 財利에 빠진 蒼生으로 인하여 三界가 盡滅之境에 이르니 原始 神聖·佛·菩薩이 會集하여 九天에 계시는 九天大元造化主神에게 하소연하므로 구천상제께서 1871(辛未)년 음력 9월 19일 降世하셨다. 그후 구천상제께서는 天下匡救에 진정 뜻을 두시고 1897년부터 천하를 周遊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면서 세상의 병을 진단하셨는데, 구천상제께서 진단하신 결과는 진멸지경의 원인을 無道病에 걸린 인간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주의 相克之理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천상제께서 우주의 상극적인 법을 상생의 법으로 뜯어고치는 일을 1901(辛丑)년부터 1909(己酉)년까지 하였는데, 이를 가리켜서 天地公事라 한다.

구천상제께서 삼계가 개벽하여 인류가 꿈꾸는 이상세계 즉, ‘道通眞境’ 세상이 펼쳐지지 않은 것은 우주의 법이 상생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우주의 법을 상생으로 바꾸는 공사가 필요하였고, 우주의 법을 상생으로 바꾸려고 하니 상생 轉換의 沮害要因이 있으니 그것이 곧 삼계에 가득 차 있는 冤이었다. 그래서 구천상제의 해원공사는 필연의 과정이었고, 이러한 필연의 과정에서 해원과 동시에 우주의 법이 상생으로 유도되기 위해서 즉, ‘解冤相生’이 되기 위해서는 삼계의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우주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정 작업을 ‘神人調化’의 理法으로 하셨으며, 이러한 신인조화의 理法 根幹에는 ‘陰陽合德’이라는 理致가 있어야만 삼계가 개벽하여 後天仙境世上이 건설되는 것이다. 즉, 구천상제 강증산과 도주 조정산께서 陰陽關係·理氣關係, 體用關係로서 合德하지 않으면 神인이 調化되지 못하고, 신인이 조화되지 못하면 해원과 동시에 우주의 법이 상생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천지인 삼계가 상생하지 못하면 도통진경 세상이 펼쳐질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논자가 『典經』을 통하여 歸納的 방법에 의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도주께서 발표하신 증지를 가지고 演繹的인 방법에 의하여 설명한 것이다.

논자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上帝께서 大巡하신 眞理를 파악함에 있어

서 도주의 종지가 없다면 상제의 진리를 공부하는 후학들은 종교의 진수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도주께서 31세(1925 乙丑)때 ‘陰陽合德·神人調化·解冤相生·道通眞境’이라는 宗旨를 表明한 것은 도를 닦는 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925년에 표명한 종지는 종지가 담고 있는 뜻을 논하기 전에 종지의 표명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것은 구천상제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친자종도 어느 누구도 종교적인 각성과 신념을 가지고 종지를 발표하지 못하였는데 도주께서는 순수한 영적 자각에 의해서 大道를 體得하시고 9년(1917-1925)이란 간접적인 가장 짧은 인연으로 구천상제의 종교적인 眞義를 확인한 후 대도의 진수에 대한 종지를 最初로 表明하였다는 것에 있다.

그러면 1917년 4월 도주께서 조국으로 귀국할 때부터 1925년 종지를 표명할 때까지 도주께서 종교교육 받을만한 환경적인 여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도주께서는 종교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또한 종교교육을 받을 정황도 주어지지 않았다. 즉, 종교로서 갖추어야될 공식을 교육받아서 종지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新宗教가 도주에게 종교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는가? 그것은 아니다. 新宗教로서 대표적인 모델은 손병희가 1904년 12월 1일 발표한 ‘天道教’가 있지만 도주의 종교활동과는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종지를 逐出할 수 있는 구천상제에 대한 經典과 자료는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다. 구천상제에 대한 최초의 경전은 『증산천사공사기』인데, 이 경전은 도주께서 1925년 4월 28일 종지를 표명하고 1년여 지난 1926년 3월 5일에 첫 간행이 되었다. 또한 구천상제를 侍從하면서 구천상제에 대한 많은 종교적인 자료를 확보한 친자종도에 비해 도주께서 확보한 종교적인 자료는 구천상제께서 직접 남기신 친필에 의한 자료나 친자종도들의 구술에 의한 자료밖에 없으니 종교적인 자료는 매우 빈약하였을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도주의 9년간의 종교활동은 공부로써 시간을 다 할애하셨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위한 활동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도주의 종지 표명은 천부적인 종통계승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척도가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要覽』 대순진리회출판부, 1969
- 太極道 編纂委員會, 『眞經』 太極道 出版部, 1989
- 李祥昊, 『大巡典經』 甌山教本部, 1987
- 李正立, 『甌山教史』 甌山教本部, 1977
- 洪凡草, 『汎甌山教史』 도서출판 한누리, 1988
- 김 탁, 『증산교學』 도서출판 미래향 문화, 1992
- 村山智順 著, 崔吉城, 張相彦 共譯, 『朝鮮의 類似宗教』 啓明大出版部, 1991
- 육조 혜능, 光德 譯, 『육조단경』 불광출판부, 1991
- 鄭性本,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民族社, 1993
- 申一澈외 15명, 『東學思想과 東學革命』, 청아출판사, 1992